

##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장경애<sup>1</sup> · 이혜진<sup>2\*</sup>

<sup>1</sup>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부교수, <sup>2</sup>동부산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on self-determination

Kyeong-Ae Jang<sup>1</sup>, Hye-Jin Lee<sup>2\*</sup>

<sup>1</sup>Dep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up>2</sup>Dept. of Dental Hygiene, Dongpusan College, Associate professo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ental hygien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on self-determination.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dental hygiene students in colleges located in Busan. Th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with the SPSS 25.0 program using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daptation to the college environment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academic adaptation ( $r=.687, p<0.01$ ), social adaptation ( $r=.582, p<0.01$ ),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 $r=.410, p<0.01$ ), and self-determination ( $r=.291, p<0.01$ ). Among the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cademic adaptation ( $p<0.001$ ), social adaptation ( $p<0.01$ ), and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 $p<0.01$ ) showed positive effects.

**Conclusions:** Programs at the departmental and college levels are needed to help dental hygiene students adapt successfully to college life and to improve their self-determination, which is the free will to decide their own academic and life choices.

Key words: Academic adaptation, Adaptation to the college environment,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Social adaption, Self-determination

**Keywords** Academic adaptation, Adaptation to the college environment,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Social adaption, Self-determination

Received on Feb 9, 2020. Revised on Feb 28, 2020. Accepted on Mar 13, 2020.

\* Corresponding Author (E-mail: onlyhelena@hanmail.net)

## I.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며,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교육 풍토 속에 교육의 목표가 대학이 되어, 대학생들은 본인의 적성보다는 성적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 진학 후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한 부적응과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학 자퇴자의 50%는 1학년 신입생 시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학 1학년 시기에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보고가 있다[1][2]. 대학 시기는 성인 초기로 대학환경에서 단순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화와 인격 형성이 필요한 시기로 미래의 삶과 졸업 후 경험하는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춘 자기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다[3][4]. 그러나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대학생활에 적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어려움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대학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대학

차원의 활동들이 필요하다. 적응이란 주변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으로 개인의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 및 규범에 따라 생활하기 편하게 변화해가는 과정을 뜻하며 [5], 요즘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적응의 문제는 중요하며 대학생들에게는 대학생활의 성공과도 직결이 되고, 미래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기로 중요한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자기 생활을 관리하고 설계해 나가는 준비가 필요한데 심리적인 자율성이 필요하며, 외적인 보상이나 처벌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이 아닌 자율적인 행동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기 결정성이 요구된다. Deci와 Ryan[6]은 자기결정성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내면화되어가는 과정이라 하였으며,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무동기와 외적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조절로 구분하였다. 무동기는 자기결정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에 가치를 두지 않는 의미가 없는 상태이며, 외적조절은

자기결정성이 가장 낮은 단계로 보상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상태이다. 부과된 조절은 타인의 인정을 중요시하며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나 행동을 통하여 기쁨을 얻기보다 죄책감이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이며, 확인된 조절은 스스로의 행동을 중요시 생각하며 가치가 있다고 인식할 때 행동하는데 행동에 대한 즐거움과 자기만족이 목표가 아니라 목표 자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완전한 내면화의 상태는 아니다. 내적 조절은 가장 자율적이며, 자기결정성이 높은 단계로 행동 자체에 만족이나 즐거움 때문에 행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 결정성 이론은 개인의 정신적 측면과 타인과 사회집단을 연결하는 상호 보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 김[7]은 대학 신입생의 자기결정성은 대학생활 적응과 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백과 김[8]은 자기결정성의 심리적 요구가 충족되면 학업성취도와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정과 이[9]는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힘인 자기결정성이 높은 경우 대학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대학생활 적응 측면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성 요인은 대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최신 치과임상 기술뿐만 아니라 치과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환자들과 접촉하면서 환경이나 행동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자기결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련된 요인을 긍정적 사고[10]과 셀프리더십 [11], 사회적지지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12], 대인관계와 인성[13]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있으나, 대학생활적응과 자기결정성에 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스스로 학업 및 생활을 결정하는 자유의지인 자기결정성을 높일 수 있는 학과 및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한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자기기입식 방식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및 방법을 이해하고 설문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설문참여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시행되었다. 표본 크기는 G\*power version 3.1.9.2 program을 이용하였고,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은 .95의 조건하에서 최소 표본 크기는 172명이고, 회수된 설문지는 187부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178부를 본 연구에 최종 분석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대학생활 적응의 측정은 하선우[14]와 류정희[15]가 개발한 척도로 설문 문항을 근거하여 설문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은 학업적응 23문항, 사회적응 17문항, 개인-정서적응 15문항, 대학환경적응 12문항으로 총 6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의 적응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자기결정성의 측정은 Ryan 등[6]이 개발한 척도로 설문문항을 근거하여 설문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은 외적조절 6문항, 부과된 조절 6문항, 확인된 조절 6문항, 내적조절 6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자기결정성 계산에 근거하여 합산하였다. 자기결정성 계산은 외적조절과 부과된 조절은 음의 값으로 합산되고, 확인된 조절과 내적조절은 양의 값으로 합산되었다. 동기유형을 합산한 산출방식은  $RAI(Relative\ Autonomy\ Index) = (외적\ 조절 * -2) + (부과된\ 조절 * -1) + (확인된\ 조절 * 1) + (내적\ 조절 * 2)$ 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16][17]. 자기결정성이 높은 사람은 양의 값으로 나타날 것이고, 자기결정성이 낮은 사람은 음의 값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178부의 수집된 설문지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이다. Cronbach's  $\alpha$ 는 대학생활 적응 0.928, 대학생활 적응 영역별 하위요인은 학업적응 0.853, 사회적응 0.852, 개인-정서적응 0.828, 대학환경적응 0.691로 나타났고, 자기결정성은 0.894, 자기결정성 영역별 하위요인은 외적조절 0.800, 부과된 조절 0.888, 확인된 조절 0.888, 내적조절 0.891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실시하였고, 대학생활 적응, 자기결정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결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학생활 적응 영역별의 하위요인인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96.1%, 남성은 3.9%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 44.9%, 3학년 21.3%, 1학년 18.5%, 4학년 15.2% 순으로 나타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lassification	Categories	N	%
Sex	Female	171	96.1
	Male	7	3.9
Grade	1	33	18.5
	2	80	44.9
	3	38	21.3
	4	27	15.2
Results	Top	53	29.8
	Medium	102	57.3
	Lower	23	12.9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7	3.9
	Average	70	39.3
	Satisfaction	101	56.7
Total		178	100.0

다. 성적은 중 57.3%, 상 29.8%, 하 12.9%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한다 56.7%, 보통이다 39.3%, 만족하지 않는다 3.9% 순으로 나타났다.

#### 2.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자기결정성 정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자기결정성 정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점수는 3.30점으로 나타났고, 대학생활 적응 영역별 하위요인은 대학환경적응 3.45 점, 사회적응 3.36점, 학업적응 3.27점, 개인-정서적응 3.09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성 점수는 외적조절, 부과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조절을 RAI 산출방식으로 합산하여 3.18점으로 나타났다.

#### 3.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과 자기결정성간의 상관관계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과 자기결정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업적응은 대학환경적응( $r=.687, p<0.01$ ), 사회적응( $r=.683, p<0.01$ ), 개인-정서적응( $r=.547, p<0.01$ ), 자기결정성( $r=.441, p<0.01$ ) 순으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응은 대학환경적응( $r=.582, p<0.01$ ), 자기결정성( $r=.466, p<0.01$ ), 개인-정서적응( $r=.318, p<0.01$ ) 순으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정서적응은 대학환경적응( $r=.410, p<0.01$ )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환경적응은 자기결정성( $r=.291, p<0.01$ )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 4.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기결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Table 2>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determination degree of students

N=178

Classification	variables	M±SD
University life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3.27±0.53
	Social adaption	3.36±0.54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3.09±0.65
	Adaptation to the college environment	3.45±0.54
	Average	3.30±0.46
Self-determination	RAI	3.18±2.43

Self-determination RAI(Relative Autonomy Index) = (External control \* -2) + (Imposed control \* -1) + (Identified control \* 1) + (Internal control \* 2)

<Table 3>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determination

	1	2	3	4	5
1	-				
2	.683**	-			
3	.547**	.318**	-		
4	.687**	.582**	.410**	-	
5	.441**	.466**	.071	.291**	-

The data were analyzed by 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p < 0.05$ , \*\* $p < 0.01$

1: Academic adaptation 2: Social adaption 3: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4: Adaptation to the college environment 5: Self-determination

<Table 4> The influential factors of self-determination

Independence variable	Dependence variable			
	B	S.E	EXP(β)	p
constant	3.840	1.175		0.001
Academic adaptation	1.945	0.513	0.422	<0.001***
Social adaption	1.347	0.413	0.297	0.001**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0.821	0.291	0.220	0.005**
Adaptation to the college environment	0.379	0.410	0.085	0.357

\*\*\* $p < 0.001$ , \*\* $p < 0.01$

F=17.028,  $p < 0.001$ , Adj R<sup>2</sup>=0.269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o not show variables that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

실시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적응( $p < 0.001$ ), 사회적응( $p < 0.01$ ), 개인-정서적응( $p < 0.01$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고찰 및 결론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2019년 통계청 자료[18]에 의하면 74.9%로 상당수의 청소년이 사회생활 이전의 단계인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대학 수업을 통해 소양과 지식을 쌓고, 대학 내에서의 다양한 대인관계 및 활동 등을 경험 하면서 사회적 성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대학은 학생들의 성인기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스스로 학업 및 생활을 결정하는 자유의지인 자기결정성을 높일 수 있는 학과 및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

고자 시도되었다.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항목은 대학환경적응, 사회적응,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는 5점 만점에 3.30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 하위요인의 영역별 적응 정도는 대학환경적응 3.45점, 사회적응 3.36점, 학업적응 3.27점, 개인-정서적응 3.09 점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박[1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의 전체점수는 3.19점으로 나타나 본연구보다 낮은 대학생활적응 도를 보였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대학환경 적응 3.41점, 학업적응 3.11점, 사회적응 3.26점, 개인-정서 적응 3.11점으로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20]의 연구에서는 대학 생활적응 전체점수는 3.0점이었으며, 대학환경적응 3.2점, 사회적응 3.1점, 학업적응 2.8점, 개인-정서적응 2.8점으로 본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박 등[21]의 연구에서는 3.39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연구대상자들은 대학내의 체도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대학생활에 적응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외적조절, 부과된조절, 확인된조절, 내적조절로 구성된 자기결정성은 3.18점으로 나타나, 박[19]의 연구 3.00점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22]의 연구 4.68점보다는 낮아 연구대상자들의 스스로 행동하고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기결정성과 관련된 심리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 수업중 자기주도 학습방법 중 하나인 온·오프라인 연계학습인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나 문제중심의 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이 대학교육에 다양하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법을 통하여 면대면 토론 및 모둠 활동과 같은 상호 보완 학습을 진행하며, 대인관계의 질을 높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과 자기결정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업적응은 대학환경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자기결정성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응은 대학환경적응, 자기결정성, 개인-정서적응 순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개인-정서적응은 대학환경적응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환경적응은 자기결정성과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박[19]의 연구에서도 대학생활적응과 자기결정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학생활 적응 하위요인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김[7]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활 적응도는 부모자녀관계와 자기결정성과 상관관계가 있어,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잘 적응할 수록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이고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관계성이 높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 정도를 분석하여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결정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적응( $p < 0.001$ ), 사회적응( $p < 0.01$ ), 개인-정서적응( $p < 0.01$ )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학업적응은 학업성취도와도 관련성이 있는데, 이[23]는 학업성취도가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윤 등[24]은 학업성취도를 대학교육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교육성으로 대학생활만족도, 지적성취,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이 해당된다 하였다. 김[7]은 학교생활에 긍정적이며, 심리적인 적응을 잘하고, 학업에서의 이해도와 집중도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이 높다 하였으며, 김 등[25]은 대학 신입생 시기의 대학생활 적응이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므

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과 학습에 대한 준비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였다. 유[26]는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대학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인 멘토링, 공동체 활동, 세미나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대학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대학생들에게 구성원과의 유대감을 증진시켜 심리적인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이 자기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스스로 학업 및 생활을 결정하는 자기결정성을 높일 수 있는 학과 및 대학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치위생(학)과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과 관련 변수들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1. Lee KA, Shin HL, Yoo NH, Lee KH: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inventory-short form.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9(2):739-754, 2008. DOI : 10.15703/kjc.9.2.200806.739
2. Kim SH: An analysis of college student dropouts' mobility paths and structur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3(3): 131-163, 2012.
3. Jung YJ, Hong SL: Mediating effects of school life satisfaction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s on the 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3):239-257, 2012.
4. Park MJ, Choi DW: The convergence effect of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freshmen of nursing department on learning motivatio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339-49, 2017. DOI : 10.14400/JDC.2017.15.4.339
5. Kim SK: Life Stress in Freshman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2):215-237, 2003.
6. Ryan RM, Deci EL: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68-78, 2010.

7. Kim EJ: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College Freshman's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3):539-555, 2007.
8. Beak OK, Kim CJ: The factors of self-determination that affect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1(3):31-38, 2013.
9. Jung YJ, Lee EJ: Latent profiles of self-determined motivations and life goals: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7(4):187-208, 2016.  
DOI : 10.15854/jes.2016.12.47.4.187
10. Kim JK, Oh YH, Oh GS, Suh DW, Shi YC, Jung JY: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positive thinking scal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4):767-784, 2006.
11. Jung TH: Effects of self leadership education o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2(1):223-248, 2005.
12. Choi HJ, Lee MS: The associations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on college adjustment among dental hygiene freshmen.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39(2):129-138, 2013.
13. Cheon HW, Yu MS, Jun MJ: The converged influence of character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49-57, 2018.  
DOI : 10.22156/CS4SMB.2018.8.6.049
14. Ha SW: The relationships among leisure motivation, leisure involvement and the university life adjustment in leisure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9(2):331-342, 2010.
15. Lyu JH: Mediation effect of professor intimacy and moderation effect of professor expertise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ollege adaptation.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4(2):21-37, 2014.  
DOI : 10.35273/jec.2014.4.2.002
16. Kim AY: Validation of taxonomy of academic motivation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16(4):169-187, 2002.
17. Kim AY: The Development of academic motiv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4(1):111-134, 2008.
18.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19. Park JA: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and personal-major fit of college students on adjustment to college: analysis of the admission type and major of the department.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8.
20. Shin SH: Effect of part-time employment experience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5(6):1033-1041, 2015.  
DOI : 10.13065/jksdh.2015.15
21. Park JH, Lee EK: Effects of academic stress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femal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or trus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7):831-844, 2016.
22. Choi NS: The study of self-regulated learning related variables in web-based blended learning: With a focus on school adjustment behavior, academic burnout, self-determination, and participation in e-learning.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2(2):237-260, 2014.
23. Lee SJ: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the autonomy, relatedness, competence, academic achievement, emotional-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4): 903-926, 2011.
24. Yoon SK, Han YK: Analysis on Factors Influencing Career Outcomes.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23(4):131-160, 2014.
25. Kim EJ, Kim MK: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college freshman's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autonomy and competence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5):29-56, 2014.
26. You SA: An analysis of first-year experience in U. S. as an alternative for college curriculum reform.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1(5):29-57, 2011.